

“국민통합위해 불교가 힘 써달라”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자승 스님 예방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은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유영익 국권위원장 문제제기도 중국선 수행단 방문 등 잇달아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이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에 불교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 통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예로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불교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인 사회 통합을 위하여 불교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프로세스 등 4대 기조를 밝혔

다”며 “경제가 잘 돼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문화도 향유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초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함께 배석한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종교편향적 역사인식으로 임명 전부터 논란을 빚어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 불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취임을 강행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에 한 위원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21일에는 중국불교선수행단이, 10월 24일에는 남바린 영호바르前 몽골대통령이 자승 스님을 각각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내년 예산 450억원... 5% 증가

조계종, 2014년 종단 예산 편성 기초 발표

201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4일 종무회의에서 ‘불기2558(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38억 9천만 원, 특별회계 211억 5천만 원 등 총 450억 5천여 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5%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조계종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는 성과 ‘미진 사업 정리’와 ‘차기 집행부 신규 과제 집중’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24일 종무회의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제34대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종단 발전을 위한 사업과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성과가 미진하고 불분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자연 인상을 감안해 전체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기획실에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변화는 특별분담금사찰의 분담금이 올해 대비 38% 증액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부서, 미진한 사업 예산 감액해 예비비 19억원, 차기 사업 고려 통합 전산망 등에 집중 편성 11월 1일 중앙종회서 심의 확정

가 특별분담금을 ‘분담금납부예관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할 것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분담금과 직할분담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각각 3% 가량 증액됐으며, 직영사찰분담금 역시 5%선인 4억 가량

증액됐다.

신도교무금은 특별회계 잔액 감소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포교원의 신도교무금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지출을 줄여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조계종 출판사는 사업 추진비 확보를 위해 이익 배당금에서 종단 전입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제34대 집행부 출범 첫 해로 원활한 중무 행정을 위한 예비비 19억 원을 편성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재무부 예산 중 예비비에 반영됐다.

또한 세종, 위례신도시 등의 종교용지 구입을 위한 특별회계 등이 포함돼 재무부 예산은 51%가량 증액됐다.

총무부와 기획실 역시 예산이 증액된 부서다. 총무부의 경우 교역지 스님들의 4대 보험, 건강검진비가 추가됐으며, 일반직 종무원들의 임금 인상분도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됐다.

기획실의 경우 통합전산망에 지식 검색 엔진을 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이 반영됐으며, 불교사 회연구소 지원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체적으로 부서별 예산은 삭감됐다.

이밖에도 연등회보존위원회 지원금에 4억 4천여만 원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도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자승 스님의 해외 방문이 이뤄질 경우 대상 지역은 중앙아시아가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올해 호주를 방문했던 자승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됐을 경우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문화화를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편성에 대해 남전 스님은 “미래 지향적이고 중무행정 효율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뒀다”면서 “예비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의 5% 수준인 12억 원이 적절하나 차기 집행부 중무수행 기반 확보를 위해 늘린 부분이 있다. 중앙종회 심의를 거쳐 조절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2014년 예산안은 11월 1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국장단 일부 인사 단행

25일 사회국장 해만 스님 등 임명... 34대 인사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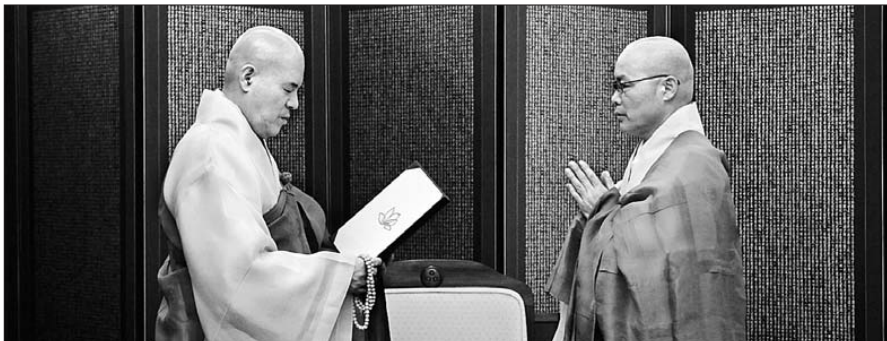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중앙종무기관 일부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자승 스님은 10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사회국장 해만 스님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스님은 사회부 사회국장 해만, 호법국장 탄원, 조사국장 법원, 호법부 상임감찰 성공, 호법부 상임감찰 탄탄, 호법과장 효신, 조사과장 항림,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명본 스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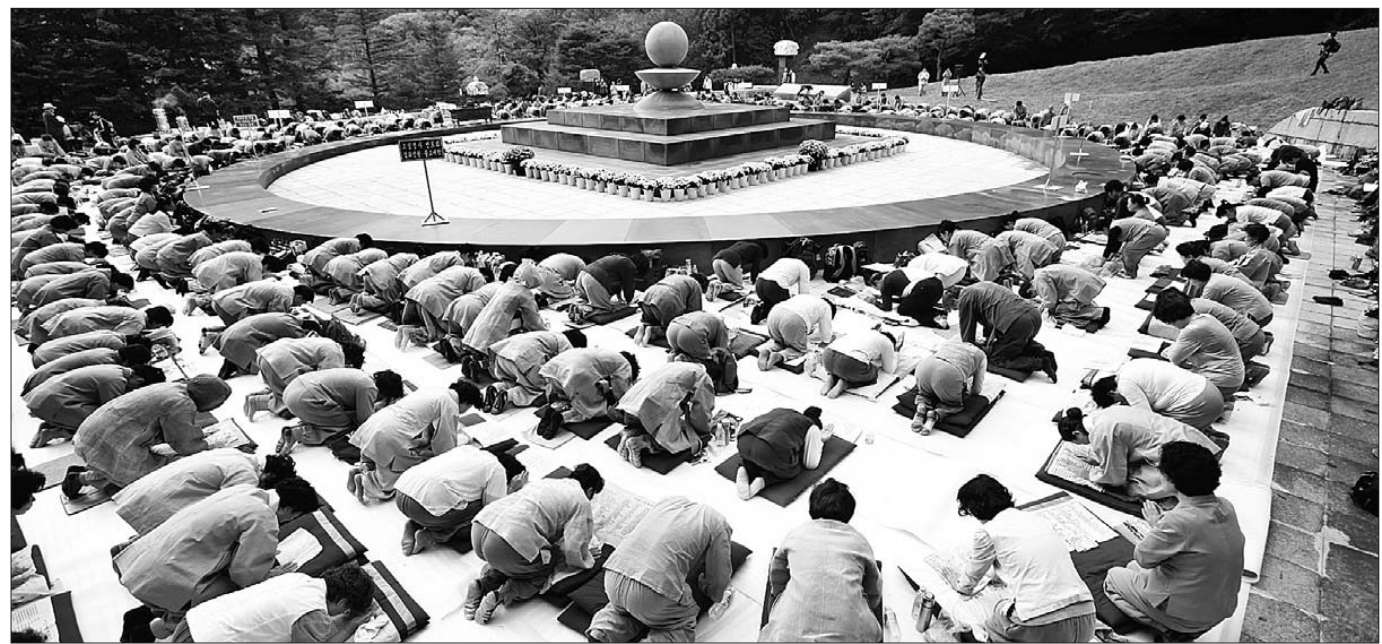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빠른 시일 내 업무과약을 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아울러 호법부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각 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사회국장 해만 스님은 1993년 철안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와 해인율원을 졸업하고 교육원 행정교육 습의사, 단일계단 구축계 습의사, 교육원 외 국인 승려교육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오봉사 주지, 묘적사 주지, 봉영사 주지, 총무원 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봉암사에서 정진했으며 현재 자재암 주지, 경찰청 경승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0월 25일 사회국장 해만 스님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10월 20일 합천 해인사 사리탑에서 열린 3000배 기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백련불교문화재단

“나 아닌 남을 위한 3천배를 올립니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맞아 해인사서 기도법회

한국 현대불교의 최고 고승인 성철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맞아 3000배 기도법회가 봉행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0월 20일 해인사 성철 스님 사리탑 앞에서 ‘모든 중생 행복기원 3000배 기도법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 불자 1000명이 참석한 이날

기도법회에서 참석 불자들은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예불문과 죽비에 맞춰 3000배를 진행했다.

이날 3000배 기도법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열린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기도’의 한 부분으로 마련됐다. 백련암에서는 성철 스님 입적일 전 일주일 동안

하루에 1만2000배씩 총 8만4000배를 올리는 기도가 이어진다. 매일 기도는 △마음이 불행하고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기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자연의 생명을 위한 기도 △영원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 등 주제로 하루 300~500명이 참가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3000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20년 동안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차별 없는 중무행정 약속”

자승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연임하는 자승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에게 차별 없고, 편견 없는 중무행정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면서 “인사를 달리한 주지 스님들께서는 향후 어떠한 편견과 차별 없이 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추후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회의는 예산 심의를 위한 중앙종회를 앞두고 2014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함께 올랐은 교육원과 포교원의 안건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교육원은 2014년 종단 법제별 교육 계획안을 포교원은 신도 ‘선혜’ 품계 품수 신청의 건을 각각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는 법주사와 고운사, 화엄사, 선운사, 동화사를 제외한 20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국태민안 기원 및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청허당 서산 호국대성사 공적비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선각총림 옴천사는 본 종단의 3대 조사이신 서산스님, 남호스님, 영담스님의 공적비 제막식을 11월 10일 봉행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호국기도도량을 발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시어 무량복덕을 지으시고 선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 내 용 : 제 1부 식전행사
제 2부 공적비 제막식
- 중 명 : 덕암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 제막의식 : 마일운 스님(서울 봉원사) 외 5인
- 초청법사 : 정다운 스님(저서 소설 천수경 외)
제 3부 : 축하공연
(박일남, 현진우, 이명주, 견우와 직녀, 정현 외)
특별출연(트로트신동 장성호)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1월 10일 (음 10. 8)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선각총림 옴천사 061)433-3233,010-3795-1420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445-14

행